

#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조은숙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

Cho, Eun-Suk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박영순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Park, Young-Soon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 Key words: KOREA, CHINA, JAPAN, Image characteristic, Identical prototype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사회의 물질 중심의 가치가 21세기에 들어서 정신 중심의 가치로 이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치칭한 동아시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문화는 어느 나라의 문화보다도 중간항 문화의 특성을 보이며, 동아시아 3국으로 대표되는 한·중·일 3국을 상생의 문화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국가 고유의 문화적, 사상적 특성이 증시되는 오늘날과 같은 다국적 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이다. 이러한 정체성 파악에 있어서 이미지는 개념, 사고, 의식과 더불어 자기 보존, 자아 본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와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분석이나 개념 파악 역시 이러한 점에 바탕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지닌 이미지 특성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개념을 추출하여 우리의 전통 조형물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나름의 조형 언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한국 고유의 조형 이미지 특성 추출을 통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 방향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으로는 조사도구의 선정과 이미지 표현 어휘 수집 및 추출을 위한 문헌 조사방법, 자유 연상 측정법,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로 사용된 한·중·일 궁궐 건축을 대표하는 사진으로는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의 외부 5점, 내부 2점씩의 칼라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47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대, 30대, 40대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직장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배포된 총 208부의 설문지 중 203부를 회수, SPS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한·중·일 궁궐 건축 이미지 표현어휘의 요인구조

[표3-1]에서 보듯이 한·중·일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이미지 표

현 어휘는 장식성, 안정감, 개방성, 선적특성, 비친근성, 여성성 등 크게 6가지 요인구조로 나타났다.<sup>2)</sup> 외부의 경우 화려함과 단순성이 하나의 장식성의 요인구조로 파악된 반면, 내부에서는 화려함과 단순성이 다른 구조로 파악되어 내부를 볼 때는 화려함과 단순함이 서로 반대된 개념이기보다 각기 다른 차원의 위양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의 구조는 외부와 내부 별로 요인이 나타난 순서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외부와 내부 별로 사람들이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1]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요인 구조

궁궐 외부의 요인 구조				궁궐 내부의 요인 구조			
요인	이미지 표현어휘	요인 부하치	eigen value	요인	이미지 표현어휘	요인 부하치	eigen value
요인1 장식성	화려하다	.839	6.432	요인1 화려함	웅장하다	.889	2.464
	장식적이다	.797			위엄있다	.884	
	웅장하다	.792			화려하다	.568	
	복잡하다	.787					
	강렬하다	.766					
	대담하다	.739					
	단순하다	-.735					
	간결하다	-.727					
	위엄있다	.720					
	담백하다	-.691					
단아하다	-.651						
요인2 안정감	대칭적이다	.771	2.008	요인2 단순성	단아하다	.893	2.029
	안정감있다	.766			담백하다	.893	
요인3 개방성	시원스럽다	.829	1.681	요인3 안정감	대칭적이다	.812	1.788
	자유스럽다	.824			안정감있다	.694	
					직선적이다	.645	
요인4 선적특성	곡선적이다	.792	1.453	요인4 여성성	여성적이다	.855	1.318
	직선적이다	-.776			곡선적이다	.734	
요인5 비친근성	어둡다	.669	1.237	요인5 개방성	자유스럽다	.833	1.056
	미묘하다	.611			시원스럽다	.821	
	차갑다	.581					

2) 외부와 내부의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이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을 살펴 보자면, 외부의 경우, 요인1은 32.158%, 요인2는 10.038%, 요인3은 8.404%, 요인4는 7.265%, 요인5는 6.185%로 총 누적 설명력은 64.052%이며 내부의 경우, 요인1은 20.532%, 요인2는 16.910%, 요인3은 14.901%, 요인4는 10.984%, 요인5는 8.803%로 총 누적 설명력은 72.129%를 나타내고 있다.

1) 김영기(1991).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p. 128

